

수출 다섯달째 내리막...손 놓은 광주시

대구시 2차례 대책회의의 할 때 광주시 '모르쇠' 5월 45억6222만달러 전년 동월대비 -23.9%

광주-전남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마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주 요인이다. 그렇다고 수출 감소세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책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광주시의 무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잠정치이기도 하지만 5월 수출 실적은 광주 45억622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9%다. 전남은 114억5153만 달러로 -24.4%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광주-전남 모두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33억372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 늘었던 광주 수출은 올들어 1월 -6.1%, 2월 -3.7%, 3월 -4.0%, 4월 -3.2%, 5월 -23.9%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8.7%, -7.9%, -6.0%, -5.7%, -24.4%로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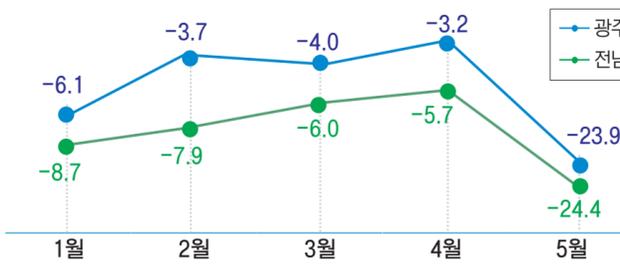
품목별로는 광주의 경우 반도체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 비중이 자동차에

이어 두번째로 큰 반도체 수출은 올들어 4월까지 12억36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 15억2800만 달러보다 19.1% 감소했다. 냉장고 -7%(2억5400만 달러), 고무제품 -12.8%(1억8200만 달러), 건전지 및 축전지 -6.9%(1억8000만 달러) 등 수출 상위 5대 품목 중 4개가 마이너스를 보였다. 자동차만 유일하게 4.2%(18억200만 달러) 성장했다.

문제는 대기업의 수출 부진이 곧바로 중소기업들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부품 -4.5%, 자동차부품 -21.4%, 금형 -1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1.7%, 가정용회전기기 -27.6% 등이다. 이는 광주 경제 악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전남은 수출 비중이 큰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제품 부진이 수출 악화의 요인이었다.

수출금액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수출 감소를 기록한 것은 모두 석유화학제품이었다. 석유제품 -8.5%(35억7000만 달러), 합성수지 -12.5%(25억7600만 달러), 기타 석유화학제품 -38.1%(5억6500만 달러), 합성고무 -3.1%(3억7700

■ 광주·전남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감률 (단위:%)



만달러), 정밀화학원료 -25.1%(2억8300만달러) 등이다.

반면, 철강판 7%(12억6100만달러),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1.7%(11억4300만달러), 기초유분 30.2%(5억2900만달러), 합금철 선철 및 고철 43.7%(1억3100만달러) 등 전남 3대 주력산업 중 철강·조선업종은 수출이 늘었다.

이 같이 수출 실적이 5개월 연속 하락세인데도 광주시는 대책회의 한 번 없이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수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경제부시장 주재로 두차례 비상 대책회의를 연 것과 대조적이다. 전남도도 지난 4월22일 정부부지사 주재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코트라 광주전남지원

단,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수출 유망기관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마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달 중 수출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점기 의원은 "마중 무역분쟁으로 야기된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지역 기업들의 수출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글로벌 요인이 크다고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수출 실적 하락에 따른 체감 경기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11.81 (+12.32)
- ↑ 금리 (국고채 3년) 1.54 (+0.01)
- ↑ 코스닥 728.79 (+7.65)
- ↓ 환율 (USD) 1180.40 (-4.80)



광주은행, 자동차부품기업 금융지원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소재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은 광주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광주은행 등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총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또한 대출금액 1억원 이하 고객에게는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해주며,

대출금리는 최저 3%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글로벌 특례보증 및 청년창업특례보증 등 광주시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경영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과 상생경영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지역 아울렛, 그린 생태계 조성 환경정화 활동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임직원들이 11일 광주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전남 지역 아울렛 4개 점포는 11일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은 광주천 일대에서, 롯데아울렛 수안점은 수안호수공원에서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고 하천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롯데아울렛 남약점은 남약수변공원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늘어나는 하천 쓰레기를 정화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의 정화 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주 열병합발전소 해결 16개 이전 기관장이 나서라"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협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광전노협)가 나주 열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이 나서 것을 촉구했다.

광전노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고형 쓰레기 연료) 문제 해결에 16개 이전 기관장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형 쓰레기 연료를 법적 허용치 안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해 물질이 배출돼 기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

을 위협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불안과 공포로 인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재영 광전노협 의장은 "기관장들이 나주 SRF 가동을 멈출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기관장들이 광전노협과 협력하고, SRF를 가동하면 기관을 SRF로부터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전노협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 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3개 기관 노조원들이 결성했다. 광전노협이 지난 달 이전기관 종사자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기관장과 경영진이 SRF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광호 광주세관장, 광양세관서 '혁신 토론회'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기업지원, 혁신 등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을 위해 11일 광양세관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양세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현장 혁신 토론회'에서는 현장직원들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내국물품 관리방식(북제펠릿)의 효율적 감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 권역내 세관을 찾아 현장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수출기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혁신 추진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시, 음악, 그림으로 일상에 문화수집품 깎아엮

- 친절한 감상, 해설 프로그램들 인기
- '마티네 콘서트' 열기 ACC 브런치 콘서트
- 온라인 세상에 꽃피는 '시 르네상스'

원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미술이 꽃 피는 섬 제주도

해외문화 현장

클림트의 그림으로 매혹하는 빈 벨베데레공전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

코펜하겐 자성의 신전 덴마크 왕립도서관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

유리컵을 좋아하는 허영인씨 "행복이 유리컵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예향 초대석

항일역사 그려내는 만화가 박시백

"일제강점기 35년은 우리사회의 원형"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토지'의 무대에 자리한 공간 하동 박경리문학관

한국영화 100년-남도 시네마 선택

1930년대 광주 출신 영화제작자 최남주 감독 박기채

트렌드 따라잡기

도전하는 시니어들 은빛 매력이 눈부시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헤르만 헤세 VS. 토마스 만

법독일권 격정, 혼돈 그려낸 소설가

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안화로 보는 대한민국>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군제대 후 '핫 스타'로 복귀한 KIA 박찬호

몸과 마음 환해지는 엘로우 시티 장성

명정한 신비 문화를 배우다 숲과 호수의 정취 만끽하는 길